

The Media Korea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코참 '2019 코리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 성료

박재한 한인회수석부회장 제 6대 한인회장에 당선

2019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



로 이끌 수장을 뽑는 선택이 미래의 한인회에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걸음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제6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로 이어졌다.

투표와 개표절차 설명, 입후보자 기초연설,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낙선자 인사, 당선자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18명 가운데 92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조규철 후보가 30표, 전민식 후보가 23표, 박재한 후보가 39표를 얻었다. 투표결과에 따라 다득표 한 박재한 한인회수석부회장이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박재한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연회비 30만 루피아의 개인회원을 적극적인 홍보로 늘려나가 보다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면서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할 것”과 “중요한 한인사회 관련 사안들을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절차적 정당성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한인들이 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2월 26일, 쉐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호텔에서 한인회의 명예 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양영연 한인회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사회는 국민의례, 2018년 결산보고 의안과 한인회 사업보고 의안을

심의하고 소속단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바란다. 한 단계 도약하는 한인회를 위해 용기를 내신 입후보자 세 분께도 박수를 보낸다”며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주는 한인회

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마중물이 되어 다음 세대를 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인회장이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의 자리와 역할이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한 제 6대 한인회장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SM, 인도네시아 진출한다... CT그룹과 조인트벤처 설립

SM엔터테인먼트는 인도네시아 CT그룹과 손잡고 현지 시장에 진출한다고 21일 밝혔다.

SM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복합 기업 자이일 탄중(Chairul Tanjung, 이하 CT그룹) 산하의 엔터테인먼트 법인 ‘트랜스 미디어 코르포라 (PT Trans Media Corpora, 이하 TMC)’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했다.

1987년 설립된 CT그룹은 방송국, 은행, 유통망을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SM과는 지난해 10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며 교류에 속도를 냈다.

앞으로 조인트벤처는 SM 소속 아티스트의 진출과 인도네시아인 팝 콘텐츠 제작, 종합광고대행,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디지털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국민가수 로싸 영입

웃 나라에서도 인기가 높다. 조만간 SM 대표 그룹 슈퍼주니어와 음원도 발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한세민 대표, 동남아시아 한경진 지사장을 비롯해 CT그룹 까이를 탄중 회장, 트랜스 미디어 아 누르와유니 사장이 참석했다.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과 로싸도 자리를 함께했다. SM은 “2억6천만명 인구 중 젊은 소비자만 1억명 이상인 아세안(ASEAN) 최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거물 막대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OUN DOOR

Flooring, Skirting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cials

Our Produ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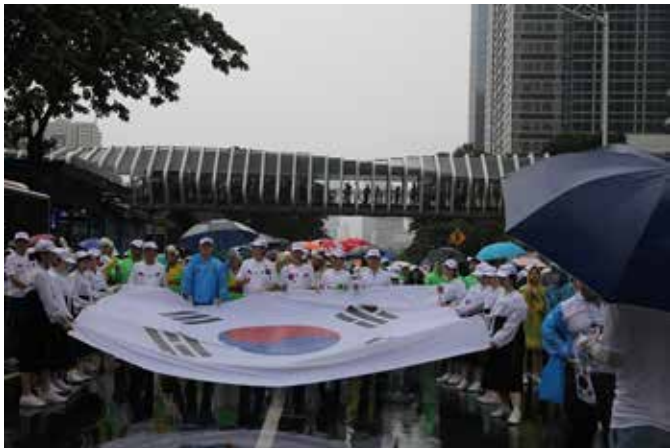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Furniture DONGSEO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3.1운동 백주년 평화걷기 대회 성료



▲ 3.1절 100주년 평화걷기대회가 3일 자카르타 중심가 수디르만에서 열렸다.[사진:한인뉴스]

3월 3일 일요일, 3.1 운동 100주년 평화걷기대회가 많은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디르만 거리에서 펼쳐졌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교장 백우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송광종)가 주관하고 주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김창범)이 후원한 평화걷기대회는 시작부터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을 포함한 한인동포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3.1운동의 의

미를 되새겼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은 “독립의 뜻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고 남녀노소가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의 물결을 만들었던 그날을 오늘 자카르타 한복판 수디르만에서 기쁘게 재현해 보자” 라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부여했다. 독립선언서에 뜻을 같이 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우신재(BIS.13)학생

의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한인회 김우재 명예고문의 선장으로 만세삼창을 외치는 순으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걷기대회에는 유관순 열사를 상징하는 8명의 JIKS 여학생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고 사물놀이의 힘찬 연주를 들으며 태극기를 든 한인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행진하였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한인동포 구정희씨는 “가정을 이룬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가 되어 이런 행사에 함께 와보니 새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동포로서 강하게 느껴진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6시 30분부터 한인단체들과 JIKS 학생들의 후원과 각계 한인동포, 한국의 민주평통 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등의 참여로 우천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분위기로 이끌었다.

한인뉴스

ELITE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韓정부, 인니 북갈리만탄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에 교부금 지원 승인



한국 정부가 최근 해양수산부를 통해 떠나 꾸닝 망꾸빠디(Tanah Kuning-Mangkupadi) 국제 항만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60만 달러의 교부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19일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수산부의 장기육 항만투자 협력 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는 한국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장기육 책임자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킥오프 미팅이 끝난 직후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단독 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규모의 업그레이드된 타당성 연구에 대한 모든 결과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번 미팅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움이 되길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타당성 연구는 최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부 갈리만탄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드래곤 랜드(PT Dragon Land)는 석탄 화력 발전소(PLTU)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떠나 꾸닝 망꾸빠디의 국제 항만 및 공업지대에 발전소와 항구를 포함하는 5,664ha의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6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드래곤 랜드 측은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60만 달러의 교부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분석을 마친 후에는 항구 건설에 3~4년, PLTU에 최대 3년이 필요하다. 우리는 1년 안에 공업지대의 모든 기반 시설을 완공하려고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땅그랑반튼 한인회 2019년 상반기 임원보고회 열려



지난달 28일 땅그랑반튼 한인회(회장:채만용) 임원보고회가 땅그랑 피낭시아 소재 채어맨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보고회는 땅그랑반튼 한인회 이세호 초대회장을 비롯해 2대 하연수 명예회장, 3대 오세명 명예회장과 4

대 한인회 임원과 부회장 및 운영이사가 모두 모여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땅그랑반튼 한인회는 지난해 다문화가정 큰잔치와 수낫판. 코리아 페스티벌, 땅그랑반튼

한인의밤등 굿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고 올해 초 반튼주 쓰나미로 인한 구호성금 모금을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해 실시해 지역 재해주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큰 일을 했다. 올해는 상반기중 땅그랑반튼



한인회의 독립 아야산이 설립되어 명실공히 탄탄한 한인회다운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는 땅그랑반튼 한인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땅그랑반튼 한인회 10년사 제작을 진행한다. 이번에 편찬되는 땅그랑반튼 한인회 10년사는 그간 우리 한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동했던 사안들을 년도별 사업별 정리해 10년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가오는 10년을 위



▲재인니 땅그랑반튼한인회 채만용 회장
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땅그랑반튼 지역 한인기업,업소 디렉토리를 제작해 우리 한인동포들의 소통과 화합,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역 한인회의 자부심과 소속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제작하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10년사와 한인기업,업소 디렉토리는 하반기 10월경 출판예정이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널리 알릴 것으로 본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건설 임박 이르면 오는 6월 착공... 2021년 하반기 생산 목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이르면 오는 6월께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짜카랑 지역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 건립 등으로 협업 의사 타진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 시설 기반을 갖춘 국내 협력사에 계획을 공유 중인 것으로 안

다” 고 말했다. 현대차가 생산할 차종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차종인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MPV(다목적차)와 승용차 제품군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차종은 모두 B세그먼트(소형차)를 기반으로 한다. 소형 SUV ‘코나’의 공급이 여기에 속한다. 현지 소득 수준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은 주변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을 곧 체결할 예정

인 만큼 호주가 유망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작년 우리 측에서 요청한 소비세 차등 적용 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율은 4도어의 경우 1500cc 미만은 30%, 1500cc 이상은 40%이고, 5도어는 1500cc 미만은 10%, 1500cc 이상은 20%다. 이는 주로 4도어 1600cc 이상을 주

종으로 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판매되는 새 차 가운데 20%(약 40만대)를 전기차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드래곤 랜드, 65억 달러 투자해 北갈리만만에 산업단지 건설

한국기업이 이끄는 민간컨소시엄이 65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북부 갈리만만 산업지구, 항구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키로 해 주목된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래곤 랜드(PT Dragon Land)는 떠나꾸닝 땅꾸빠디(Tanah Kuning-Mangkupadi) 국제항구 및 광산가공회사에 배정된 산업구역내 5,664ha의 면적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드래곤 랜드 관계자는 “타

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분석을 끝내고 항구 건설을 위해서는 3~4년이 필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는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래곤 랜드의 임용(Lim Yong) 회장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6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하는데 한국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1년안에 산업단지의 모든 기반 시설을 완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6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자바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코참 ‘2019 코리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 성료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은 지난 2월 27일 ‘Together We Grow’를 주제로 연례행사 중 하나인 ‘2019 KOREAN BUSINESS DIALOGUE’를 불리아 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정부 관계자 및 한인기업인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참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동 행사는 코참 송창근 회장의 코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각 부처 고위관료 참석에 대한 감사 환영사로 이어졌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2018년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총 무역액은 약 186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12.4%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등 4차 산업혁명 비전 실현을 위해 꾸준히 인도네시아를 도울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포(Airlangga Hartarto) 산업부장관은 ‘Industry Collabora-



tion and Opportunity’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기업가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에 대한 꾸준한 투자 증가를 장려했다.

무하맛 하니프 자끼리 (Muhammad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고용의 장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

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conomic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의 주제로 헤루 뽀부디(Heru Pambudi) 관세청장의 발표가 끝나고, 로버트 팍빠한(Robert Pakpahan) 국세청장의 ‘Tax Revenue Update & Fiscal Year 2019 Policy Di-

rection’ 발표가 계속되었다. 이날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하리야디(Hariyadi B. Sukamdani) 회장은 참석자들에 노동 집약적 최저 임금 규제, 사회적 책임(CSR) 그리고 종교 관련 민감한 공공 이슈를 다룬 정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신타(Shinta W. Kamdani)부회장이 참석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코참 이강현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산업부, 관세청, 국세청 국장이 참석하여 한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매년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를 초청하여 신 규정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인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한인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전달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행사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후원하여 코참에서 개최하는 연례 행사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코참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난타전 조짐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선거운동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기 싸움을 이어가 앞으로 남은 3차례 TV토론회는 물론 두 후보 지지자 간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자카르타 시내 술탄 호텔에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과 뿌라보워 수비안포 그린드라당 총재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진행됐다. 에너지, 식량, 사회기반 시설, 천연자원, 환경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꼬위 대통령과 뿌라보워 총재가 1대1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뿌라보워 총재가 동부 깔리만판 주에 22만 헥타르와 아찌 주에 12

만 헥타르 등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대규모 토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뿌라보워 총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외국인이 토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공격한 답변을 했다. 뿌라보워 총재의 답변 후 중간 광고가 나가는 동안, 카메라가 꺼진 토론장에서는 두 후보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여 싸우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슈가 된 토지 중 일부는 2004년 당시 유습 깔라 부통령이 허가를 해주었으며, 깔라 부통령도 “외국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 보다 내국인이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인 뿌라보워 총재의 엄청난

난 자산이 드러나면서 수하르토 집권기를 일컫는 신질서시대(Orde Baru)의 잔재와 적은 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국가의 권력과 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과두정치의 행태를 폭로해 서민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뿌라보워 진영의 전략에 치명타를 입혔다.

또 조꼬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유니콘’을 성장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질문한 것이었다. 그러나 뿌라보워 총재는 갑자기 등장한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듯 “유니콘이 뭐냐? 그 온라인의 것들을 말하는 거냐”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꼬위 대통령 지지자들은 뿌라보워 총재가 기본 시사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속히 이슈화했다.

뿌라보워 총재는 조꼬위 정부의 비효율에 초점을 맞춰 공격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비효율과 낭비가 심각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

은 2014년 취임 이래 19만1천km에 달하는 오지마을 도로와 고속도로, 공항, 항만을 건설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한 것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워 선방하는 등 두 번째 토론에서는 다소 우세한 분위기를 보였다.

조꼬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뿌라보워 총재보다 9.2~20.1%

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억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은 앞으로 남은 3차례 TV토론회를 주목할 것이다. 두 진영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난타전이 예상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 산업용 전력 2023년까지 요금 인하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은 계약 용량이 3만Kva(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대규모 산업에 대해 전기 요금을 인하할 방침을 나타냈다. 실시는 2022~23년경이 될 전망이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PLN의 조꼬 이사(東자바.발리.누사 퐁가라 지역 사업 담당)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980루피아로, 이것을 800루피아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PLN의 소피안 바시르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총 발전 용량 3,500만Kw의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 후 전기 요금을 인하하기 쉽다”며 “실시는 3~4년 후가 될 것”고 설명했다.



조꼬 이사는 251Twh(테라와트시)를 목표로 하는 올해 전력 판매량의 80%가 산업에 대한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내려 가면 이웃 나라에 대한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발언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발전소에 비해 연료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에 주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도 인하할 방침을 전했다.

韓정부, 5년만에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 재개



▲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앙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한 공동선언문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앙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ASEAN) 10개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후 양국 관

심을 더 깊이 논의하고자 2012년 3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이며, 교역·투자·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을 타결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공식협상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양국 간 교역과 투

자를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상 역량을 집중해 올해 중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통상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모여 신보호무역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협력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8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모드 아민 루압둘라 재정경제부 2장관과 양국 통상협력, 투자협력, 에너지·인프라 분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21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다텔 레이킹 통상산업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 내셔널 등과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印尼 자동차 시장, 중산층 증가로 구매력 확대 주목



2억 6,000만 명 인구의 인도네시아가 자동차의 잠재적인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산층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지난 2014년 침체기를 겪은 뒤 이후 지난해까지 서서히 회복세를 유지해왔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업협회(가이킨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2018년 총 차량 판매 실적은 115만대로 전년대비(108만대) 6.8% 증가했다. 지난해 차량 판매가 증가한 것은 상업용 차량 판매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트럭과 픽업트럭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승용차의 경우 전년대비 3.82% 증가한 87만 4660대가 팔렸지만, 상업용 차량의 경우 27만 6631대로 전년 대비 17.77%나 증가했다. 글로벌 컨설팅 리서치 컴퍼티 프로스트&설리번(F&S)의 한 관계자는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출과 인프라와 제조업 분야에서의 민간 투자를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물류와 교통산업의 차량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환율변

동과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스트&설리번은 2019년 자동차 시장은 신흥시장에서의 긴축재정상황과 미국의 통화 정책,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원자재 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약 5% 내외로 예측되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인프라 구축에 415조 루피아(한화 약 33조 3245억 원)를 배정했지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추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인프라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상업용 자동차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중산층의 증가는 자동차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한말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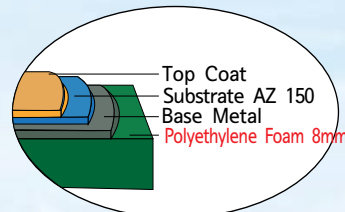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width, 35mm height)
2. 25mm Trimdek (1040mm width, 25mm height)
3. 35mm Spandek (920mm width, 35mm height)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width, 110mm height)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width, 55mm height)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width, 35mm height, 20mm gap)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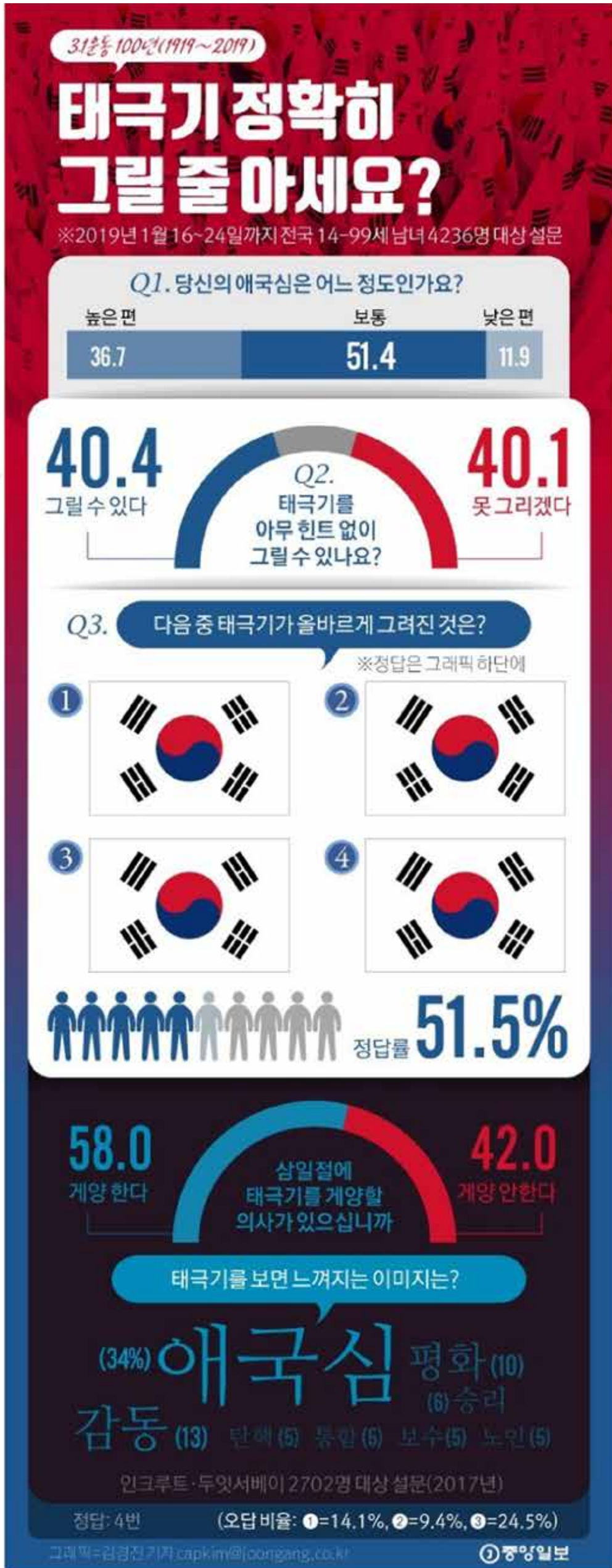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ONE SHOT] 이 중 올바른 태극기는? 한국인 2명 중 1명이 틀렸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은 힌트 없이 태극기를 정확히 그리지 못한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이 정확한 태극기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 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4236명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애국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당신의 애국심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가량인 51.4%의 응답자가 '보통' 이라고 응답했고 '애국심이 높다' 는 응답은 36.7%, '애국심이 낮다' 는 응답도 11.9%나 차지했다.

태극기를 힌트 없이 그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꼴인 40.1%가 '못 그리겠다' 고 답했고, 태극기의 정확한 형태를 찾는 퀴즈에서도

절반가량의 응답자인 48.5%가 정확한 태극기 모양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절 태극기 게양과 관련한 과거 설문에서 따르면 응답자 42%가 3.1절에도 '태극기 게양할 생각이 없다' 고 답해 국경일 태극기 게양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남녀 2702명에게 '태극기 하면 느끼는 이미지' 는 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애국심(34%)이라고 답했으며, 감동(13%), 평화(10%), 승리(6%), 보수(5%), 탄핵(5%), 노인(5%), 통합(5%)순으로 나타나며, 탄핵 정국과 태극기 집회 등의 정치적 이슈들과 연결되며 세대로 정치성향별로 태극기가 다른 이미지로 존재함을 나타냈다.

[출처: 중앙일보]

기업銀, 인니 법인 출범 앞두고 통합작업 '분주'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말 인수 승인을 받은 현지 은행들의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아그리스은행(PT Bank Agris) 본사에서 IBK인도네시아 은행의 통합 IT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기업은행 본사의 IT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직접 참석해 제안 업체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IT시스템 통합 작업 일정을 점검했다.

특히 통합 IT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요청서(RFP)에 기재된 요청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기준으로 후보 업체들을 평가했다.

기업은행은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IBK인도네시아 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차질 없이 IT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IBK인도네시아 은행은 기업은행이 중국 법인에 이어 해외에서 두 번째로 설립하는 현지 법인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아그리스은

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PT Bank Mitraniaga)의 인수 승인을 동시에 취득한 바 있다.

두 은행의 합병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IBK인도네시아 은행을 설립하는 게 목표다.

그간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위해 경영·전략, 인사, 리스크, 자금, 여신, 수신, 외환 등 각 부문별로 합병 후 통합 작업(PMI)을 준비해왔다.

IT시스템 구축은 법인 출범 후 원활한 영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통합 작업으로 꼽히는 분야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최근 PMI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인수 은행의 경영진과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에는 오혁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이 참석해 인수 이후 진행 절차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 보고할 사항 등을 체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인수 승인을 받은 이후 곧바로 두 은행의 합병 작업에 착수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IBK인도네시아 은행을 출범시켜 조기 안정화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신도'란 말의 영어 'laity(layman)'는 헬라어 'laos(백성)'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본래 이는 원어상 백성의 의미로 아무런 선입관이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매우 담백한 용어였다.

이 용어의 출현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 구분되기 시작한 AD 2세기 경부터로 알려졌다. 사실 사도들의 초기 교회 약 100년 동안은 '평신도'나 '성직자'를 구분하는 개념조차 아예 없었다. 신약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대등한 제사장(벧전2:9)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장로와 집사도 성직자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Clemens)'가 처음으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라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교회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자도 모두 성직자로 간주했다.

이러던 것이 점차 예배 주관자와 설교자들의 교권이 강화되면서 '사제'라는 직분을 새로 만들었고 오직 자신들만이 성직자라는 흐름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선 '평신도'란 명칭을 성직자 계급과 구별되는 '평민'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용어가 일반 성도들을 다분히 비하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크다. 마치 성도들을 하층 계급으로 깔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대신에 '성도'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이 많다.

심지어 어느 신학자는 "평신도란 용어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다"고 까지 말했다. 물론 이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반발이다.

그동안 나 역시 이 평신도란 용어를 써야 할 때마다 크게 주저

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자에는 다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이 평신도란 용어보다 일반 성도들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보통 성도에 대해 이보다 더 실용적인 용어가 별로 없다. 게다가 이 용어는 이미 너무 오래 동안 사용되어서 그 의미가 거의 관습화하고 고착되었다.

'평신도'는 자랑스러운 이름 예를 들어 누가 '평신도교회'라고 말하면 우린 그 교회의 정체성을 즉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반면에 '성도교회'라고 말하면 이게 정확히 무슨 교회를 의미하는지 그다

는 개념이 그 속에 아주 진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소심한 목회자들은 평신도라는 소리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 심할 경우 "아니, 평신도를 깨워서 뭐 할 건데? 머리만 커져서 목사 잡아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도를 폐지하고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별도의 직분은 없다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평신도(백성)란 용어는 본래 특별히 누구를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단지 중세 교회가 이를 차별적 의미로 악용했을 뿐

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누구나 이 '평신도'란 용어를 아무런 제약이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오늘날 소위 '성직자'라는 명칭으로 계급화한 직분이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지극히 선명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평신도교회의 회복

지금 우리에게 왜 '평신도교회'가 필요할까. 왜 평신도가 주도하고,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관리하고, 평신도가 섬기고, 평신도가 책임을 나누는 교회가 필요할까.

그 이유는 상당수의 제도권 교회가 사실상 또 다시 사제화한 담임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중세적 '맹신 교회'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 교회가 교황과 사제만 말하는 교회였다면, 개신교는 목사만 말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는 오늘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 직분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불의하게 과도한 교권을 지닌 제왕적 목사직과 계급적 직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다. 현행 목사직은 신학적으로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다.

신약 초기의 교회엔 별도로 제사장 행세를 하는 성직자가 없었다. 천대를 받던 어부나 세리 출신의 사도들조차 아무런 신분 차별이나 특권 의식이 없이 서로 장로나 형제의 호칭으로 소통하고 친교했다.

이제 맹신의 시대는 끝났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가 과거 '교황교'나 '장로교'나 '감독교'나 '목사교'의 실패와 아픔을 극복하고 비로소 성도 중심의 '평신도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평신도교회는 어원적으로 백성, 인민, 또는 민중으로 표현되는 우리 민족들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다.

예수의 진리를 너무 종교화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이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전인 초기 200년 간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던 '평신도교회'였다. 거기엔 별도로 제사장도 없었고 성직자도 없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당시에는 제도권 교회가 경시하던 평신도였다.

당당뉴스

**예수님도 평신도였다
평신도교회와 맹신도교회**



지 감이 안 온다. 더구나 요즘 많은 교권주의자나 성직주의자들은 이 '평신도'란 표현을 다분히 두려워한다. 소위 성직자적 특권을 누려온 자신들의 입지에 저항하

막말하는 목회자도 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만민사제설(만민제사장)'은 평신도의 성직권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 운동이었다. 인위적이며 계급적인 사제 제

이다. '평민'이란 말 또한 귀족과 대비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용어가 되는 건 아니다. 평신도는 평민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보통 백성'이나 '보통 사람'이란 이름이 부

**2030년 EC산업 규모 2,305조 루피아 예상...
2017년의 18배로 확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EC) 산업 시장 규모가 2030년에 2017년의 약 18배인 2,305조 루피아에 달할 전망이다.

홍콩 비영리 연구단체인 하이린 이히재단(Hinrich Foundation)과 호주의 컨설팅 회사 알파베타 어드바이저(AlphaBeta Advisors)가 최근 인도네시아 EC 산업의 전망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인도네시아 시장 규모는 농업·식품이 2017년의 약 20배인 548조 루피아, 소비재 및 소매가 약 39배 증가한 539조 루피아, 인프라가

약 21배인 289조 루피아, 제조업이 89배인 178조 루피아로 모두 대폭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EC 산업의 2030년의 수출액은 2017년의 8.5배인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를 데일리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조정부의 모하마드 루디 부장(창조 산업·기업·중소기업 경쟁력 조정 부문)은 "국가 전자상거래 시스템 로드맵에 관한 대통령령 '2017년 제74호'의 개정령을 작성 중이다.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세금, 운송, 개인 정보 보호 등 EC 산업 전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국립대병원 13일 개업...
국내 최초 9.0 면진 설비 적용**



인도네시아국립대학병원(RSUI)이 13일 개업식을 가졌다.

일본의 엔차관으로 건설된 이 병원은 국내 최초로 리히터 규모 9.0의 면진 설비가 적용됐다.

현지 언론 폼빠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서부 자바주 데벵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0만 6,100평방미터로 5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14층 입원 병동은 연면적 8만 2,074평방미터, 300병상을 갖추고 있다. 치과,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10개 진료과를 가진다. 이날 개업식에 참석한 모하마드 나시르 연구·기술·고등교육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고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병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외래 환자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 접수 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응급 환자는 당분간 다루지 않는다.

환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뽀족찌나 기차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부속 병원의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08년 3월 엔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당당뉴스

‘섬 국가’ 인도네시아...물류산업 성장 위해 투자 박차

약 1만8,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물류산업 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0km²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이는 한반도의 8.5배에 달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는 물류산업 성장의 잠재성을 내포하면서도,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군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규모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연 5%대의 경제성장률은 물류 산업 발전의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게다가 다양한 해상운송과 국제 화물 운송업자, 육로 운송에 연계된 택배업자, 다양한 종류의 운송업을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업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물류 산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운송 및 물류 창고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10.79%가 성장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특히 2017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는 안정된 경기, 수출입 및 투자유치의 활성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대다수가 화물의 대부분을 말레이시아, 혹은 싱가포르에 보관 중이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물류협회(ALFI) 따르면,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은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5%으로, 태국(13.2%), 말레이시아(13%), 싱가포르(8.1%) 보



다도 훨씬 높다. 지난해에는 전체 GDP의 23.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추산됐지만, 주변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끼 누그라하완 ALFI 회장은 “현재 계획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구축되면 물류 비용은 GDP의 21%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화물 운송에 대한 모든 추적 절차 및 배송 체계 부분의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 물류 비용이 GDP의 18~19%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류 산

업 인프라 구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관련 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정부예산으로 할당된 에너지보조금 지출은 341조8,000억 루피아(한화 약 27조 3,440억원)에서 119조1,000억 루피아(약 9조 5,280억 원)로 감소한 반면, 인프라 지출은 157조4,000억 루피아(약 12조5,920억원)에서 256조1,000억 루피아(약 20조 5,136억원)으로 증가

했다. 또한 올해 국가 예산안의 에너지보조금은 160조 루피아(약 12조8,160억원)로, 2015년도 지출보다 53.2% 감소했지만, 인프라 지출은 415조 루피아(약 33조 2,415억원)로 62% 늘었다.

지난 2012년에는 육로 및 해상 운송이 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7년부터는 항공 운송과 육로 및 해상 운송의 차지 비중이 거의 비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로와 해상 운송 분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이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항공

운송의 경우 역직구 및 해외 관광객 입국 수 증가 등이 빠른 속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운송 분야는 연평균 21.84%의 성장률을 보이는 항공 운송이며, 철도 운송(17.7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공항이나 터미널 등의 증축과 신규 개발 등 인프라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17년에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58개의 국내선과 25개의 국제선 등 총 83개의 신규의 상업용 항공 노선 개통을 승인했고, 이외에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증축과, 족자카르타 국제공항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철도 또한 마찬가지로 MRT 및 LRT 등 자카르타 도심 및 광역 철도 노선을 구축 및 개통해 나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중부 자카르타를 잇는 공항철도가 최초로 개통됐다.

이외에도 해안 고속도로의 구축으로 인한 선박 증가 역시 운송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실제로 쌀이나 설탕, 밀가루, 시멘트, 식용유 등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청년 창업가 해외진출 돕는다 ... 베트남·인니서 판촉전 “70개 청년 창업 기업 참여”



▲ 2018년 롯데마트 고밥전에서 진행됐던 해외판촉전 [롯데마트 제공=연합뉴스]

롯데 유통사업 부문은 청년 창업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70개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판촉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25일까지는 롯데마트 베트남 고밥점에서, 오는 3월 22~25일에는 인도네시아의 간다리아시티점에서 판촉전이 진행된다.

천연치약, 키보드, LED램프, 숙취해소제, 완구 등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롯데가 2015년부터 해온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스타트업 창업대전’의 일환이다. 롯데마트는 베트남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촉전 하루 전 베트남 내의 유통 MD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연다. 우리나라 청년 창업가들에게 현지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이 행사에 참여

했던 업체 ‘JS아이디어’의 아쿠아슈즈는 준비된 물량이 완판된 것은 물론 작년 한 해 누적 수출액이 10만 달러를 넘는 성과를 보였다고 롯데는 소개했다.

이원준 롯데 유통사업 부문 부회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치열한 시장 경제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인니 정신질환자 감금 ‘빠송’ 여전... 족쇄 채워 10여년 방치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동(東)누사텐가라 주 코타 폼바 지역 주민 알렉시우스 두기스(31)가 발목에 나무로 된 족쇄가 채워진 채 무너진 오두막의 잔해에 앉아 있다. [자카르타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가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악습 ‘빠송’을 법으로 금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환자들이 쇠사슬과 족쇄에 묶인 채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5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부 누사텐가라(NTT) 주 꼬따 폼바 지역 주민 알렉시우스 두기스(31)의 발목에는 10년째 나무로 만든 족쇄가 채워져 있다.

알렉시우스의 가족들은 2009년 그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안전을 이유로 그를 집 근처 오두막에 감금했다.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그는 단 한 차례도 전문가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했다.

주도 꾸쌍 시에 있는 병원 한 곳을 제외하면 동부누사텐가라 주에는 정신질환을 다룰 의료시설이 전무한 데다 진료를 받으러 갈 경제적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우스의 증상은 갈수록 나빠져 현재는 옷조차 입지 않은 채 무너져 가는 오두막에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시우스의 어머니인 코르네리아 다게는 “아들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진다. 보건소 직원들이 간혹 상태를 보러 오지만 약을 주거나 진료를 해주진 않는다”면서 “정부 당국이 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마을 주민 리카르두스

에 기도까지 하고 왔으나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며느리도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들 외에도 동부누사텐가라 주 곳곳에선 수년째 감금된 정신질환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 돕는 활동을 해 온 현지 자원봉사단체 ‘끄롬뵉 까시 인사니

스’ (KKI)는 동부누사텐가라 주에만 약 4천명의 정신질환자가 있고, 이중 1천200명 이상이 쇠사슬에 묶이거나 족쇄가 채워진 채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 자료를 인용해 최소 1만8천800여명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한 채 감금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197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빠송’ (pasung·족쇄·수갑 등을 뜻하는 현지어)으로 불리는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각 지역 보건소가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에 실제로 정신질환을 진료할 능력을 갖춘 보건소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쿠쿠, 인니 밥솥·정수기 렌탈 진출 이어 제조공장 추진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에 판매 및 렌탈 유통 해외법인을 진출시킨 가전업체 쿠쿠가 5년 이내에 현지 제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 자카르타에 진출해 있는 쿠쿠 인도네시아법인(PT. CUCKOO GLOBAL INDONESIA) 썹 리(Seng Lee) 대표는 쿠쿠의 해외공장 건설 소식을 전했다.

그는 “한국 전기밥솥 시장



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가전업체 쿠쿠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중상층의 성장과 풍부한 인구를 고려할 때 매우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현지 시장에서 쿠쿠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1,000명의 인도네시아 렌탈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현지 언론은 쿠쿠 제품이 현재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오는 2020년 말레이시아에 동남아시아 허브공장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향후 5년 이내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쿠쿠는 앞서 20일 정수기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선보인 데 이어 공기청정기와 전기밥솥도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다.

쿠쿠 한국본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언론의 현지 제조공장 건설 보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시사했다.

한편, 쿠쿠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7개국에 8개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해외서비스센터도 북미, 러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에 1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 - 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 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 34세이하 해외취업성공자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 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기업



구인등록



구인·구직 등록 및 매칭



구직등록

구직자

지원 및 혜택

구인광고 지원 :
신문-온라인 광고비
최대 90% 혜택

구직자 취업 후
정착지원금(800만원) 지급
(만 34세 이하, 첫 취업 시 1년간 나누어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대상, '제1회 한-인도네시아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 성료



▲ 24일 서울 코리야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대상그룹 한-인도네시아 대학생 스마트폰 푸드영화제' 시상식에서 주요 인사와 영화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서훈교 대상홀딩스 경영관리팀장, 전창근 대상 글로벌사업부장, 정훈연 대표, 임정배 대표, 권용석 홍보실장(사진=대상 제공)

대상홀딩스는 지난 24일 코리야호텔에서 '제1회 대상그룹 한-인도네시아 대학생 스마트폰 푸드영화제' 시상식이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훈연, 임정배 대상 대표를 비롯해 대상 및 대상홀딩스 관계자와 전 참가자가 참석했다.

'대상그룹 한-인도네시아 대학생 스마트폰 푸드영화제'는 한류 주 소비층인 전 세계 청년층을 대상으로 K-푸드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진행되는 크로스 컬처 프로그램이다.

'E.T.(Eat! & Travel!) Film Festival'이라는 부제로 진행돼 '맛'을 주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두 나라 음식을 체험하고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등 문화를 교류하며 영화제작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 영상, 시나리오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16일 국가별 12명씩 총 24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한국 3명,

인도네시아 3명 등 6명씩 한 팀을 이뤘다.

대상그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양국 학생들이 문화적 충돌 없이 교류하고 주제적으

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2주에 걸쳐 문화와 종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수차례 사전 미팅을 거치고 촬영 계획 수립과 시나리오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불교·힌두교 사원이 공존하는 족자카르타에서 촬영한 이후, 19~23일 서울로 이동해 종로, 인사동, 이태원, 한강, 명동, 잠실 등 주요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모든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진행됐으며, 영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그룹이 지원했다.

심사는 작품 기획 우수성, 완성도, 창의성과 더불어 별도

제작한 메이킹필름 영상 완성도와 독창성, 활동기간 동안 성실성 및 팀워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우승을 차지한 Avengers팀(Vincent Ricardo, 윤현기, 안지원, 김지영, Ayu Yasmina, Siyola Yunami Hurilaini)은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전하는 두 나라 매운 전통 소스(삼발소스, 고추장)에 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았다.

우승팀에는 상금 600만원과 부상이 수여됐으며, 수상작과 메이킹필름은 'E.T.(Eat! & Travel!) Film Festival'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승팀 팀장 Vincent Ricar-

do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소중한 기회를 준 대상은 물론 함께한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촬영 도구나 기술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팀워크가 더 소중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훈연 대상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가수교 해인 1973년 대상이 국내 1호로 진출한 나라로, 대상그룹 성장에 의미가 있는 국가"라며 "한번 만남으로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고 오래 지속되는 행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그룹은 앞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영화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 대학생 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페스티벌로 영화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당분간 유예할 듯 ... 업계 우려 반영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할랄'(Halal) 인증 의무화 시기를 품목별로 길게는 7년까지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DPR)은 2014년 모든 수입식품과 소비재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



학·생물학 제품, 전자자조작 식품(GMO), 소비재 상당수가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의 수교소 청장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할랄 인증 의무화법 시행 이후에도 품목별로 최장 7년의 과도기를 두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초

안이 마련돼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식품 산업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할랄 인증을 마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할랄 인증 의무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돼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과 의약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까닭에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25개 제약업체가 소속된 단체인 국제계약그룹(IPMG)의 파롤리안 시만준탁 회장은 "계약업체는 2026년까지 할랄 인증을 마쳐야 하는데 해외 제약업체가

할랄 기준을 엄수한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할 방안이 마땅찮다"고 말했다.

할랄은 '신이 허용한 것'이란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2억6천만 인구의 87.2%가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관련 시장은 2022년까지 4천270억 달러(약 48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 의무화를 통해 연간 22조 5천억 루피아(약 1조8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에너지광물장관령... 옥상 태양광 발전의 걸림돌”

인도네시아 옥상태양광사용자연합(PPLSA)은 국영 전력 PLN과 옥상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이 오히려 옥상 태양광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PPLSA의 밤방 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에 공포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

49호’는 PLN가 옥상 태양광 발전의 전기를 정상 가격의 65% 감액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라며 “또한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자의 약 30%가 잉여 전력을 축적하기 위해 따로 비용을 들여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온그리드 방식에서 오프그리드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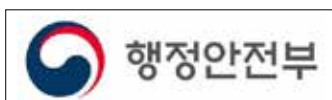
밤방 회장은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도 PLN의 동의가 필요하다. PLN에 인증된 업체만이 설치 가능하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연구 관련 비정부기구(NGO) 인스티튜트 포 에센셜 서비시즈 리폼(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의 파비 꾸미와 대표도 “에너지광물장관



령이 옥상 태양광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PLN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태양광 발전 설치자는 약 8년 안에 투자금을 회

수할 수 있지만, 65% 감액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11년에서 12년까지 걸린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본 등 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



행정안전부 4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상 6종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등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

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또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외교부, 아세안 10개국 전담 국(局) 설치 추진



駐아세안대표부 대사 격 높이고 인원도 확충...對아시아 외교조직 확대 외교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상대 외교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를 맡고 있는 남아시아태평양양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서남아 국가들과 호주·뉴질랜드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세안 10개국 업무만 따로 떼어내 별도의 국(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중국 업무만 전담하는 국도 신설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 업무를 동북아국에서 함께 맡고 있다. 외교부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동북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인 대(對)아시

아 외교 조직은 아세안국-중국국(가칭)-아시아태평양국(일본·인도·오세아니아 담당)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주(駐) 아세안 대표부 대사의 격을 높이고 인원도 현재 5명 수준에서 10여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세안국 신설과 주아세안대표부 인원 확충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이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꽃피는 금융한류, 해외점포 33% 아세안에...146곳에 달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현지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문화 한류 못지않게 '금융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남아 금융 한류는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연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등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금융 영토' 확장 가능성 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지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고, 지역 금융감독 당국·현지 은행과도 접촉해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잇달아 동남아로 출국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보험·카드 등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지점·사무소·법인)는 총 436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세안 10개국에만 33%(146곳)가 몰려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3곳(14.4%)으로 가장 많고, 미국 55곳(12.6%)에 이어 베트남이 52곳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베트남에 국외 거점을 내는 금융회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25곳, 미얀마 21곳, 싱가포르 18곳 순



이다.

은행권에서는 외국 진출 성공 사례로 '신한베트남은행'을 꼽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최근 호찌민시 중심가인 1군에 있는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만난 회사원 응우옌후센 푸엥 씨(27)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도 비슷하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며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이미지가 더 좋아졌고, 한국계 은행이나 유통 업체에도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국외 점포 범위를 은행업 면허(라이선스)를 가진 현지 법인으로 좁혀보면 격전지는 단연 인도네시아다.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oudara Indonesia)뿐만 아니라 KEB하나은행(PT Bank KEB Hana Indonesia), 신한은행(Shinhan Bank Indonesia)까지 3개 법인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해 영업 중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2014년 현지 소다라은행을 인수해 탄생한 우리소다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4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디지털뱅킹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여기에 OK저축은행이 인도네시아 안다라은행(Bank Andara)과 디나르은행(Bank Dinar)을, IBK기업은행이 아그리스은행(Bank Agris)과 미트라니아가은행(Bank Mitra Niaga)을 각각 인수해 합병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OK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신한베트남은행의 경우 박항서 감독을 홍보모델로 쓴 후 고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00만명에 못 미쳤던 숫자가 지난해 말 113만명으로 2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초 12만4,000명 수준이던 신한베트남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도 지난해 말 18만명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근무 직원 규모도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17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7%는 현지인이다.

신동민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은 "현재 자산과 대출 잔액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베트남 전체 은행 중에서 20위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지점 수를 늘려 15위권에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호주계 ANZ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인수·합병하면서 베트남 전역에 30개에 달하는 소매금융 네트워크를 단숨에 확보했다. 또 지난 1월에는 현지 1위 메신저 플랫폼 잘로(Zalo)와 함께 비대면 대

출상품 '포켓론' 개발에 착수하는 등 리테일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억5,300만달러였던 개인금융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9억5,200만달러로 3배 가까이 경증 뛰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자산 규모 기준으로 현지 14~15위 규모인 부코핀은행(Bank Bukopin)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부실 수준을 관리하며 차차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원 10여 명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은행이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파이낸셜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아 연내 인터넷은행(디지털은행)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아직 금융 발전 정도는 낮지만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영토 확장을 노리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다. 캄보디아에서는 KB국민은행이 2016년 현지 특화 모바일 앱 '리브 KB캄보디아'를 출시한 후 현지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미얀마에 현지 재계 1위 업체 HTOO그룹과 함께 농기계 금융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항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kakaoVX
tee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SMART GOLF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